

의료보험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

- 재활 및 물리치료료 -

자료정리/취재부장 이 정 근

항 목	심 사 사 례 및 유 권 해 석	관 련 근 거
제 7 장 ◦ 산정 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lectric accupuncture 는 의료보험으로 급여하지 아니한다. • 2종 이상의 물리치료를 할 시에는 상병명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항목의 치료를 하여야 하나, 2종 이상의 치료항목 중 동일 치료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중복하여 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승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심사시에는 종류별, 시술 시간 등을 합산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하기 바람, 물리치료를 청구할 시 진료의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급여 기간까지 시술이 가능함. • 추간관 연골 탈구증 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일 전기요법, 열기요법, 마사지, 약욕 등 4종의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시술을 하여야 하며, 약욕의 산정은 문제점이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. • Balkan flane 의 장착에 대한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 재활 의학 분야는 작업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법 제 5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진료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요양 취급기관이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할수 있는 시설, 장비 및 진료 능력을 갖추고 치료를 할 경우에 해당 항목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. “모든 진료 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진료수가 기준액표의 매 분류 행위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.”는 ‘주’를 부가할 필요성 있음. • 요추 결핵에 결핵약을 투여하면서 시행된 물리치료, 사-1 hot pack, 사6 ultrasound, 사14가 TENS, 사15가 운동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• 오십견에 hot pack 은 시행하기도 한다. Cold pack refrigeration unit 에 의한 냉습포 시행은 사1에 준용 인정한다. • 사3 적외선 치료는 동일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이므로 한가지만 산정한다. • 동일 환자에게 각각 다른 상병으로 다른 부위에 hot pack 과 infra red ray 를 동시 실시시 1종만 인 	<p>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5.9.5) 보사부 급여 1492-6264 호(80.5.17)</p> <p>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5.1.23) 보사부 급여 1492-14118 호(81.9.5)</p> <p>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5.9.3)</p> <p>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2.6.29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1.12.8)</p>
◁ 치료료 ▷ ◦ 표재열치료 (온습포) (Superficial heat) 사-1		

항 목	심 사 사 례 및 유 권 해 석	관 련 근 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부 온열치료 (Diathermy) 사- 2 ○ 적외선 치료 사- 3 ○ 피부과 자외선 치료 사- 5 ○ 초음파 치료 사- 6 (ultra sound) 	<p>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 7 장에 분류할 재할 및 물리치료료 산정지침중 외래는 1 일 1 회, 입원은 1 일 2 회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 환자에 대하여 2 가 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,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 회만, 입원은 2 회까지만 소정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 임. • 사 6 초음파 치료와 동시 산정시 동일 효과를 나타내 는 처치이므로 1 종만 인정한다. • 주 2 ; 동일 효능의 wave 는 1 일에 여러 종류를 할 필요가 없다. • Furunculosis 에 인정한다. • 안과 ·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 요법을 시술하였을 경 우는 사 3 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. • 백반증, 건선, 장미색 비강진, 아토피성 피부염, 화 폐상습진, 지루성피부염, 소양증 세균감염, 완선에 인정한다. • 원형 탈모증에 주 2 회 정도 인정한다. • 피부과 전문의원이 아닌 경우는 사 4 자외선 치료로 대치인정한다. <p>가) Carbon arc lamp 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자외선 치료를 위하여 mercury-vapor arcs 를 이용한 quartz & lamp 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적외선 치료기기로서는 carbon arc lamp 와 특수한 quartz tube 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.</p> <p>나) Carbon arc lamp 는 금속염의 심(core)에 따 라 파장이 각각 상이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발생 시켜 환자의 체표면에 조사시킴으로서 자외선의 조사효과와 적외선의 표재열, 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리치료 요법임. 따라서 carbon arc lamp 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를 한 경우에는 “사 3 ” 의 소정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람. 동치료 시 연소시는 탄소봉 재료대는 “사 3 ” 또는 “사 5 ” 의 소정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ED test 를 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사 5 의 소정 금액을 산정함. • 골절직후 사 6 초음파치료는 하지 않는다. • 말초신경 변성에 초음파 치료와 전기자극 치료는 적 응증이 되지 아니한다. 	<p>보사부 급여 1492-33495 호(84.11.27)</p> <p>피부과 분과위원회 (84.2.17) 수조 1460-2636 호 (79.2.27) 피부과 분과위원회 (84.2.17)</p> <p>피부과 분과위원회 (84.5.4)</p> <p>피부과 분과위원회 (84.5.4) 보사부 급여 31510-66113 호(85.8.3)</p> <p>보사부 급여 1492-6736 호(84.5.16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3.5.3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2.12.3)</p>

항 목	심 사 사 례 및 유 권 해 석	관 련 근 거
○ 증기욕 사- 7 (steam bath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장기의 아동에게 관절 부위에 초음파 치료는 골단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한다. • 심장부위 안면 부위에는 초음파 치료는 원칙적으로 적응증이 되지 아니한다. • 골수염에 인정하지 아니한다. • 초음파치료 또는 적외선 치료시 사용되는 안티푸라민 약제는 인정하며 mineral oil, olive oil 은 인정하지 아니함. (85년 4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) • 서로 다른 부위에 초음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부위 및 치료회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여야 함. • 다발성 관절염, spinal spasm, 동통이 있을시 시행한다.(기구가 고가이므로 청구시 P.T 현황을 알아본다) 	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3.5.3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2.10.6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2.6.29) 보사부 급여 31510-38828호(85.3.21) 보사부 급여 1492-39571호(82.4.15) 재활의학과 분과위원회(85.6.7)

<다음호에 계속>



무 제

김 수 민

제기랄 심오분도 채 안되어 뻐 가다니 /
 하얀 까운의 얼굴을 향해 잠시동안의 눈총을
 쏟았으나, 되받아치는 시선에 기가죽어 이내 고
 개를 떨구어야 했다. 내가 지금껏(물리치료실에
 온 이후로) 한 마디 말도 뱉을 수 없었던 것은,
 대뇌의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어서가 아니었
 다. 치료실 전체를 싸고있는 냉한 중압감, 흰 까
 운의 반짝거림에 비해 윤곽조차도 불투명한 시
 커먼 얼굴들 때문인 것이다.

Hot pack이 걸혀진 발목을 만지작거리는데
 그는 -까운의 사내- 어느틈에 왔는지 큰 키로
 내려다 보고있다. 손 → '으악' 내 손의 세 배
 는 되겠다. 발목을 주지 않으려고 끄끙 대었으나
 기어코 그의 손아귀로 들어갔다. 그는 점점 내
 발목에 강도를 더하면서 굳어진 관절을 꺾려하
 고 있다. 기부스를 풀지 얼마 되었다고, 아무래
 "사람살려요! /"

돌아본 그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. 흐릿한 얼굴
 에 유난히 입가에 점 하나가 눈에 띄었다.

"김선생님 치료시간 되었습니다."
 눈을 떠보니 박선생이 곁에 와 있다. 점심시간이

도 붙여놓은 뻐를 다시 부수려나 보다 '악 사람
 살려요' 말은 나오질 않았지만 두 손이 해엄을
 치듯 발광을 한다. 다행히 누군가 다가온다.
 여자인듯 까운에 맵시가 흐른다. 얼른 그녀의 팔
 을 잡았다.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내 팔을 붙드
 는 것이었다. 무기력에 의한 체념으로 이빨을 꼭
 물고 견디기 십분, 그가 내 발목을 놓아주었을
 때는 다리 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어려웠
 다. 몇번 헉헉거리다가 긴 한숨을 토하기 무섭게
 그는 전기기구를 부위에 대고 있었다. 이제는 아
 예 몸뚱아리 전부를 그에게 맡겨버렸다.

'맘대로 해봐라 나도 악만 남았어'

그가 재빨리 기계를 조작한다. 순간 갑자기 벼
 락이 떨어진듯 전기가 몸 구석 구석을 쥐어짠다.
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. 그러다 겨우 터져나
 온 일말의 비명.
 끝난 것이다.

"꿈을 꾸신 모양이죠? 잠꼬대까지 하시고"

"잠꼬대?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?"

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. 여느때 처럼 내 입
 가에는 까만 점이 붙어있었다.